

# 전기작가 사르트르

이 재 룡\*

## 目 次

- I. 전기의 비평적 의의
- II. 사르트르와 전기
- III. 방법론의 문제 : 「가족의 천치」서문
- IV. 전기와 성

사르트르의 삶도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 다름없이 시행착오나 모순으로 점철되어 사후에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의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나 초기작과 후기작의 변화가 단순한 발전적 차원이 아니라 모순이나 변질의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기적 환상”과 “성”(聖, sainteté)이란 두가지 문제는 이런 점에서 독특한 위치에 놓인다. 하나는 사르트르가 유년기부터 죽기 직전까지 지속적 관심을 보였던 주제이고 다른 하나는 언뜻 생각하면 지속적 무관심을 보였다는 일관성이 있다. 전기적 환상이나 성이란 용어가 불분명하므로 전자는 글쓰기의 한 장르로서의 전기 (Biographie)에 대해 사르트르가 품었던 고유의 집착이라 하고 후자는 종교 현상으로서의 성이나 신에 대한

---

\* 人文大 佛語佛文學科 教授

문제라고 주제의 폭을 좁히고, 신에 대한 문제에 철저히 무관심했다는 가정은 사르트르가 다른 다양한 주제에 보여 주었던 왕성한 호기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었다고 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듯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이며 스스로 밝혔듯 그는 12살에 신앙심을 잃었고 한번도 열렬히 믿어본 적이 없었던 작가이다.<sup>1)</sup> 언뜻 종교의 문제에 무관심한 듯 보이거나 본고는 지속적 관심의 대상과 이렇듯 도외시된 주제가 심층적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두 주제는 하나의 기획, 즉 전기적 환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제의 폭을 좁혔으나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본고는 문학 비평적 시각이라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르트르의 모든 기획 (Projet)은 철학적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문학, 평론 등과 같은 행위도 실존주의라는 철학적 조명으로 비춰서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에 비해 본고는 전기가 지나는 비평적 의미만을 분석하는 한정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첫번째 시각은 우선 사르트르 자신의 발언에 힘입어 그 정당성을 갖는다.

“내 문학작품 전체는 이렇 것이다: 철학적 의미를 지닌 문학작품. 문학적 대상은 또한 철학적 대상이기도 하다”<sup>2)</sup> 그러나 사르트르의 다양한 활동을 오로지 『존재와 무』나 『변증법적 이성비판』에서 주장한 철학적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은 사르트르 작품의 복합적 의미를 축소하고 독자나 평론가의 해석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각기 독립성을 갖는 텍스트로 제시된 소설, 희곡 등은 물론이려니와 전기물에서도 전기의 대상 인물보다는 사르트르의 철학, 사르트르의 방법론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파악하여 그 의미를 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철학적 방법론의 이해와 더불어 보다 심층적 연구의 결과로 사르트르가 그린 전기 대상 작가의 초상화를 통해 사르트르의 무의식 세계, 즉 초상 화가는 모델이 바뀌어도 초상화 속에 자신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남긴다는 전제 하에 그 무의식의 흔적을 찾는 것도 결국은 전기 대상보다는 전기 주제를 찾는다는 점에서 전기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반감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태도는 일차적으로 사르트르가 고무한 해석 방향이며 전기 대상 작가와 주제 간에는 필연적으로 감정입입이나 투사현상, 심리적 전이현상이 있다는 정신분석에 기초한 접근 방법이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무수한 연구가 행해졌고 많은 소득을 남긴 바, 본

- 1) “J’ai perdu la foi à douze ans. Mais j’imagine que je n’ai jamais cru bien fort” Les Carnets de la drôle de guerre, Carnet III, p. 92 édition Gallimard, 1983
- 2) “La totalité de mon oeuvre, ce serait ça : une oeuvre littéraire qui a un sens philosophique. L’objet littéraire est aussi un objet philosophique”, Dominique Marie, Création littéraire et autobiographie, éd. Pierre Bordas et fils, p. 41

고는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에 의해서 간헐적 지적되었으나 독립된 주제로 다루이지 않은 사르트르의 전기와 사르트르의 종교적 태도 간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물론 두가지 주제는 각기 별개의 연구를 요구할 만큼 복잡하고 방대한 분야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르트르의 전기가 갖는 의의를 다루고 종교적 태도와 연관되는 부분은 시론으로 남겨 차후 보완을 하고자 한다.

## 1. 전기의 비평적 의의

전기(Biographie)는 생존했던 인물의 삶을 대개의 경우 사후에 연대기순에 따라 정리한 글이다. 과거의 사실을 회고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복원한다는 점과 비록 그 주된 목적이 한 개인의 생애를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적 차원이지만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기술 태도는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되 그가 시대적 사건에 주역이 되어 개인의 운명이 집단의 역사와 만나 어떻게 전개되고 굴곡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형식 면에서 문학의 서사시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된다. 전기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전기가 씌어지는 시점의 가치 기준에 비취보아 커다란 업적을 남긴 모범적 삶을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기는 후세에게 삶의 전범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그 시대의 윤리적 가치 기준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국가와 교회의 위인이 전기의 대상이 되어 집단 이데올로기가 한 개인을 통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훈적 기능을 지닌 전기는 그 어떤 글보다 인간의 자기고양에 도움이 되는 장르라는 찬사를 받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세속화가 확대되고 교육이 국가적 사업의 일환이 되어 체계화되기 시작했던 19세기부터 프랑스는 위대한 문화적 유산의 주역들을 선정하고 그들의 천재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전기를 통해 실현했다. 국가가 주도한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의 복원 작업에 포함된 작가는 1840년대에는 17세기 작가까지 한정되었다가 1902년에 이르러 동세대 작가까지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sup>3)</sup> 전기의 대상 인물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쟁 영웅, 종교적 성인에서 이제는 문화적 위인, 특히 작가가 주요 대상인물로 등장한 것이다. 그때부터 문학 연구의 주안점은 수사학에서 문학사, 특히 전기로 옮겨지고 제도에 의해

3) Le Biographique in Revue des Sciences Humaines, n 224, “Vie des grands auteurs du programmes” par Brigitte Diaz, p. 220

그 필요성이 인정된 전기는 양적 팽창을 거듭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내밀한 삶까지 당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낱낱히 들춰져서 후세의 심판대에 오른다는 것은 전기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독자에게 공히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즉, 전기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한 개인의 이면사를 엿보는 건전치 못한 호기심에 야합하는 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범적 삶만이 전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시대의 가치규범으로부터 가장 일탈된 삶을 살았던 기인의 사생활이 전기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색된다면 전기는 가장 윤리적 장르에서 가장 저급한 장르로 타락한 소지를 지니고 있다. 특히 예술가의 삶이란 범속한 눈에는 항상 뭔가 정상에서 일탈된 모습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희대의 범죄자 프랑스와 비용 François Villon, 온갖 악의 상징을 두루 탐닉했던 보들레르 Baudelaire나 동성 연애자이자 도둑이었던 장 쥬네 Jean Genet가 그렇다. 따라서 전기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두 가지 모순되면서도 일맥상통하는 근거, 즉 모범성과 예외성”이 강조된다.<sup>4)</sup> 허구보다 더욱 극적인 삶을 살았던 예술가들에게는 삶과 작품이 하나일 수 있고 작품은 체험의 직접적 침전물이며 작가의 삶으로 조명된 작품세계는 일차적 독법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의미까지도 밝혀질 수 있기에 전기는 문학연구에 중요한 보조수단이 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비평가, 혹은 전문적 비평가라 칭할수 있는 생트-베브 Sainte-Beuve 를 이리한 전기 비평의 시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 생트-베브” (Contre Sainte-Beuve)에서 푸르스트 Proust가 빈정거린 전기비평의 약점은 소위 신비평에 이르러서는 환원적 실증주의라는 죄명으로 쓰고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문학 연구에서 전기에 의존하는 것은 텍스트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삶이 텍스트 해석의 등불이 되어 텍스트의 어두운 구석, 간과되기 쉬운 의미까지 풍요롭게 밝힐 경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연인의 삶 자체를 연대기에 따라 복원하려는 관점에서 씌어진 전기는 문학 비평의 일차적 관심에서 제외된다. 현대 비평에서 사회적 자아 le moi social와 창조적 자아 le moi créateur를 구분하여 작가와 작품의 단절을 주장하는 이유는 작품을 작가 삶의 일부, 삶의 에피소드로 축소하는 환원주의의 오류를 경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비평은 이러한 오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단비평이라 일컫는 아카데믹한 문학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실천

4) “Le biographié se met en valeur par deux types d'arguments contradictoires, qui peuvent se joindre : son exemplarité, proximité fraternelle et exaltante, ou son anormalité(jusqu' à l'exception monstrueuse), singularité fascinante qu'il faut comprendre” Daniel Madelénat, La Biographie, éd. PUF, p. 86-7

되어온 접근 방법이며, 현대에 이르러 정신분석, 사회학, 심리학, 언어학 등 인접 사회과학의 힘을 빌어 결코 도외시하지 못할 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 비평이 일반적으로 랑송주의를 배격하고 작가와 작품의 단절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박제화, 익명화된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면 전기비평은 정신분석, 사회학, 기호학 등 범학제간 접근방법으로 종합을 가능케 하는 유연한 비평방법, 그 통합원리로서 재검토해 볼만하고 이런 점에서 사르트르는 좋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2. 사르트르와 전기

미셸 콩타 Michel Contat와 미셸 시카르 Michel Sicard가 정리한 “사르트르의 글” Les Ecrits de Sartre을 대충 훑어보더라도 사르트르가 다룬 분야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활자화되지 않은 강연회나 인터뷰 등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활동 영역의 폭은 보통 작가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존재와 무』로 대표되는 철학을 위시하여 희곡과 소설로 대별되는 문학, 그리고 소설, 연극, 미술, 음악, 정치에 관련된 문제까지 그 대상을 확장했던 평론까지 그의 글은 모든 분야에서 고른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그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다룬다는 것은, 인간은 여러가지 성향의 단순한 집적이 아니라 유기적 총체성으로 봐야 한다는 사르트르의 주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접근 양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철학, 소설, 희곡, 그리고 평론으로 대별하여 사르트르에 접근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로 본다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기물은 평론의 하부 장르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남긴 전기는 사르트르 자신이 전기에 부여한 의미나 가치에 미뤄본다면 전기 장르를 집필하기 이전의 평론 활동과는 그 층위가 다른 개별 주제로서 분리하여 다뤄져야 한다. 1944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946년에 탈고한 『보들레르』, 1948년에 시작하여 미완으로 남은 『말라르메』, 1949년 시작하여 1952년에 발간한 『성(聖) 주네, 배우와 순교자』, 그리고 1956년에 시작하여 1971년에 1, 2권, 1972년에 3권을 발간한 플로베르 전기인 『가족의 천치』 등 연대기적 사실만 보더라도 전기 장르는 사르트르가 작가 생활을 시작했을 초엽부터 말년까지 지속적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점차 그 저작 분량도 늘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기에는 철학, 소설, 연극, 기타 다른 활동과 병행하며 전기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다가 후기에 이르러서는 다른 장르의 집필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집착”으로 변할 만큼 전기는 독점적 비중을 차지한다. 단순히 집필 분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제목의 변화만 보더라도 전기의 진화를 엿볼 수 있으니, 처음에는

대상 작가를 부각시켰다가 (보들레르) 점차 대상 작가보다 사르트르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고 (聖 주네, 배우와 순교자) 『가족의 천치』에 이르러 작가명은 부제로만 남게된다. 이러한 제목의 변화가 그 내용 상의 특징을 적절히 요약하며 사르트르가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부터 점차 멀어지며 해석과 비판 쪽으로 기울어짐을 보여준다.<sup>5)</sup> 평론가를 사자의 무덤에서 춤추는 미물로 취급할 만큼 평론 행위를 평가절하했던 사르트르가 전기에 집착한 것은 일견 모순된 현상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기 작가와 전기의 대상이 된 인물은 동등한 입장에 있지 않다. 대상 인물은 한결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인 바, 전기 작가는 시종일관 겸손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게 되는 게 상례이며 이러한 전기 작가와 대상 인물 간의 관계 relation biographique는 사르트르에게 낯설은 인간 관계의 양상이며 오히려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쉽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사르트르의 전기는 대상 인물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평을 받는다. 장 주네는 사르트르가 쓴 자신의 전기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sup>6)</sup> 『가족의 천치』에서 플로베르와 그 가족은 19세기 상층 부르주아의 전형으로 취급 당하면서 냉혹한 도덕적 단죄를 받게된다.<sup>7)</sup> 보들레르, 말라르네, 주네, 플로베르 등, 전기의 대상 작가에 대해 사르트르가 견지했던 관계는 양가적 정서 sentiment ambivalent에 입각한 비판적 관계이니 일반적 전기적 관계와는 사뭇 다르다. 사르트르의 “윤리론”이 비록 미완성 초고의 상태로 출간되었지만 그것을 통해 나타난 사르트르의 윤리관에 비춰보면 보들레르, 말라르네, 플로베르 등은 실존적 가치체계, 즉 자유나 행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인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 작가에 대한 사르트르의 감정은 다르고 전기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단언할 수 있는 점은 일반적 전기와는 달리 사르트르는 결코 전기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감화가 집필동기가 아니란 것이다.

5) Michel Sicard는 제목의 변화는 곧 사르트르의 주제가 그 폭을 넓히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했다. “Les titres deviennent de moins en moins immédiats, jusqu’ à barrer complètement le nom du ‘personnage’ central : cela correspond à un élargissement du projet sartrien : ‘Que peut-on savoir d’un homme aujourd’hui?’” La Critique littéraire de Jean-Paul Sartre, éd. Archives des lettres modernes, t. 1, p. 11

6) 장 주네는 “르 몽드”지외의 인터뷰에서 사르트르가 쓴 자신의 전기가 지루해서 완독하지 않았다고 했고, 사르트르에게는 그 전기를 벽난로 속으로 던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7) 마르트 로베르는 1971년 7월 2일자 르 몽드에 기고한 『가족의 천치』 서평에서 “법정인가, 분석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사르트르의 분석이 정신분석에 위배된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사르트르가 전기라는 장르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는 여러가지 층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우선 “모든 본질적 지식은 존재와 관련된다, 혹은 본질적으로 존재와 관련된 지식만이 본질적으로 지식이다”<sup>8)</sup> 이라고 주장한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으로 “진리가 작용하는 유일한 공간은 오직 구체적 존재, 유일한 생명체함”<sup>9)</sup> 이라는 실존주의적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전기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존재와 무』와 같은 철학은 보편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전기의 철학에서 체계화된 존재론을 구체적 인간에게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장르라는 게 이유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존재와 무』에서 원리를 제시한 “실존적 정신분석”, 그리고 『방법론 문제』에서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종합, 극복한 대안으로 제안한 “진행-퇴행적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한 인간에게 적용하여 그 방법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이 플로베르 전기를 저술한 이유라고 사르트르는 밝힌 바 있다. 과연 한 인간은 다른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타성 (altérité)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타자는 영원히 불투명한 존재인가라는 철학적 문제를 구체적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주체와 타자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없애고 상호투명성 (Translucidit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사르트르의 전기적 기획 중 하나이다. 투명성은 사르트르가 자신에게 부과했던 개인 윤리이며 사르트르는 자신을 만천하에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는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신념을 지니고 살았다. 『이상한 전쟁 노트』에서 “이 전쟁시까지 나는 공개적으로 살았다. 이 노트도 실은 공개적으로 사는 방식 중 하나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는 가장 은밀한 내면 세계를 간직하는 일기나 편지도 항상 공개를 전제하고 썼고 “내적인 삶이나 비밀을 간직하지 않는 눈부시고 조금은 건조한 형식의 존재로 살기로 결심했다”라 말하며 결벽증에 가깝도록 자신을 투명하게 내보이고자 했던 것은 다시 타인도 자기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상호 투명성의 요구로 나타나며 이것이 진정한 인간 관계의 초석이 된다고 믿었다. 사르트르가 후기에 기획했던 구조적 인간학의 목표는 『플로베르론』에서 제기한 “오늘날 한 인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문학비평이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보편적 학문으로 성립되려면 객관적 방법론이 필요하

8) “Tout connaissance essentielle concerne l'existence, ou seule la connaissance qui a essentiellement trait à l'existence est essentiellement connaissance” Daniel Madelénat, La biographie, PUF, 1984, p. 95, note 1, 재인용

9) “On juge l'existence concrète, l'expérience vitale unique comme le seul lieu où se joue la vérité,” idid.

지만 그렇다고 방법론을 앞서우면 비평의 본령에서 벗어나기 쉽다. 문학작품이나 작가가 방법론을 정당화하는 보조 자료 차원으로 떨어지고 방법론에 대상을 끼워맞추는 재단비평의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사르트르가 제안한 보편적 방법론이 그가 다룬 다양한 작가를 한결같이 “사르트르화”(Ensarttriser)했다는 지적은 대상의 개별성을 부각했다기보다 방법론의 정당화가 앞섰다는 지적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사르트르의 전기비평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사르트르가 실천한 작품 해석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천치』에 대한 플로베르 전문학자의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가족의 천치』는 그 자체로는 훌륭한 책이지만 작가 플로베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라는 평가야말로 방법론과 그 실천적 적용의 괴리를 예리하게 지적한 평이었다. 사르트르가 유추한 수많은 전기적 사항이 플로베르를 전공한 학자들이 밝힌 사항과 거리가 있거나 심지어 위배되고 사르트르의 해석의 대부분이 정당한 자료적 근거, 역사적 근거 등이 희박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르트르가 집필한 보들레르, 말라르메, 장 주네, 플로베르의 전기가 그 작가의 전문학자들보다는 사르트르 전공자의 연구분야로 인식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가 실증적 확인이나 자료검증을 등한시한 결과 다소 위태로운 해석을 내린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나 그 때문에 『가족의 천치』 전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과장된 태도이다.

“전기는 소설이나 시처럼 당연한 장르가 아니다”<sup>10)</sup> 다니엘 마들레나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할애하는 역설적 행위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소설, 희곡 등으로 이미 문명을 떨친 사르트르의 경우 이 역설은 더욱 분명해진다. 60년에서 70년 초까지 오로지 플로베르 전기에 몰두하여 다른 활동을 포기했던 사르트르였기에 사르트르 측근조차 현실 참여를 회피하여 19세기에 매몰되는 게 역설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전통적 전기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전기를 썼으며 그에 대한 비난을 무릅쓰고 전기에 몰두한 사르트르의 집착을 이해하려면 그 단서를 그의 대표적 소설 『구토』에서 엿볼 수 있다. : 주인공 로캥탱은 롤르봉의 전기를 쓰면서 “롤르봉은 내 동반자이다. 그는 존재하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며 나는 나의 존재를 느끼지 않기 위해 그를 필요로 한다”<sup>11)</sup> 『구토』를 집필할 시기에 사르트르는 “내가 곧 로캥탱이다”라는 플로베르식 동화(보바리 부인은 나다)에 빠졌으나 그후에도 사르트르는 변하지 않았다. 적어도 전기에 대한 효용면에서는 그렇다. 그는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덜고자

10) Daniel Madelénat, La Biographie, éd. PUF, p. 86

11) 『구토』 folio, Gallimard, p. 140



했고 역설적으로 타인의 삶을 글로 남기며 자신을 “문화적 기념비”로 남기고자 했다.

전기의 철학적 의의나 그 유효성은 접어두고라도 사르트르의 전기물에 대한 관심은 그의 개인적 성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메를로 폰티가 전한 일화에 의하면 사르트르는 룩상부르 역에 온 집한 사람들을 보며 “저들 하나하나가 내 관심을 끄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고 고백했는가 하면 시몬느 드 브와르는 사르트르는 거의 편집광적으로 사람을 관찰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사소한 몸짓이나 목소리를 분석하기 위해 몇 시간을 보낼 만큼 사르트르는 구체적 한 인간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보였다고 증언한다. “그가 추구한 목표는 한 개인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개인만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었다.”<sup>12)</sup> 따라서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전기물은 철학적 체계를 검증하는 부수적 장르라는 일반적 견해는 다소 수정될 수 있다. 오히려 사르트르가 수립한 철학적 체계는 한 구체적 인간을 만족할 만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천치』를 집필한 것은 『변증법적 이성비판』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플로베르를 이해하기 위해 변증법적 진행-퇴행론을 고안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두 저작물은 거의 동시에 기획되고 씌어졌고 사르트르 표현대로 두 저작물은 삼투압적 관계를 지니며 서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3. 방법론의 문제 : 『가족의 천치』 서문

사르트르가 전기에서 시도한 방법론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갈래이다. 하나는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제시한 실존적 정신분석, 『방법론의 문제』에서 제시한 진행-퇴행적 방법론을 메타 비평 Méta-critique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구체적 적용을 실천 비평 측면에서 고찰하는 길이다. 물론 이론과 적용을 엄격히 분리할 수 없고 사르트르 자신도 본격적 실천 비평인 전기에 앞서 『존재와 무』나 『방법론의 문제』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사르트르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존재와 무』와 『방법론의 문제』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을 고찰하는 데 한정되었고 실천비평 속에서 확인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그것은 『주네론』과 『플로베르론』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전기물 속에서도 『가족의 천치』 서문은 유익한 단서를 제공한다. 전기물은 하나의 독립된 저작이므로 사르트르는 『존재의 무』나 『방법론의 문제』에서 밝힌 이론전개에 비해 보다 간략하게 방

12) Douglas Collins, Sartre as Biographer, Harvard, University Press, p. 4

법론을 실천과정에서 설명하고 이론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풀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하듯 『가족의 천치』의 전체분량이 지나치게 길다면 세 페이지에도 못미치는 이 서문은 지나치게 짧다. 원래 서문에 지나지 않았던 『주네론』이 한권의 별도의 책으로 될 만큼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서문은 그 길이 자체부터 문제적이다. 서문을 본문과 비교하여 자세히 읽는다면 『가족의 천치』 본문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첫머리에서 사르트르는 『가족의 천치』의 성격을 밝힌다. “『가족의 천치』는 『방법론의 문제』의 속편이다” 다 시말해 전기비평에서 요하는 방법론의 이론적 문제는 그가 이전에 저술한 『존재와 무』, 『방법론의 문제』, 그리고 『변증법적 이성비판』에서 이미 검토하였으니 『가족의 천치』는 그 방법론의 구체적 적용이란 뜻이다. 곧바로 그는 『가족의 천치』의 주제를 밝힌다. “주제 : 오늘날 한 개인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려면 구체적인 한 일례를 연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예를 들면 우리는 귀스타브 플로베르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sup>13)</sup> 전 3권으로 삼천 페이지에 이르는 『가족의 천치』에서 사르트르가 제기한 문제는 이렇듯 너무도 간단하게 표현되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라는 문제는 “어떻게” 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다시 이어지는데 그는 이 또한 매우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 문제는 그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총체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 다음 사르트르는 한 인간에 대한 정보의 이질성을 지적하고 그 이질성 뒤에 숨겨진 동질성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하며 한 예를 든다.

“플로베르는 1821년 12월 루앙에서 태어났다” 라는 정보는 공식문서에 의해 확인된 객관적이며 사회적 사실이다. 또 다른 정보는 훗날 플로베르가 그의 애인이었던 루이즈 콜레에게 “예술이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다. 이 역시 서간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이는 플로베르의 주관적 체험에 관련된 정보로서 첫번째 것과 다른 차원의 해석을 요한다. 이러한 정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사르트르는 각 정보를 총체성 속에서 정확한 자리매김 (mise en place)을 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가족의 천치』가 시도하고자 하는 점도 바로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여 각기 다른 정보가 보다 심층적인 동질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질적 요소에서 일관적 동질성의 확보하는 원리는 사르트르가 실존적 정신분석에서 주장한

13) “L'Idiot de la famille est la suite de Questions de méthode. Son sujet : que peut-on savoir d'un homme, aujourd'hui? Il m'a paru qu'on ne pouvait répondre à cette question que par l'étude d'un cas concret : que savons-nous - par exemple - de Gustave Flaubert? Cela revient à totaliser les informations dont nous disposons sur lui” L'Idiot de la famille, tome 1, p. 7

원초적 선택이다. 일견 이질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선택은 원초적 선택이라는 환원불가능한 원리로 일관적으로 설명된다는 게 사르트르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의 대상으로서 왜 플로베르를 택했는가를 설명한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으며 하나는 개인적 차원으로서 1943년 플로베르의 서간집을 읽으면서 그에게 어떤 빛을 청산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졌고 이를 위해선 그를 보다 자세히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플로베르에 대해 가졌던 반감이 공감으로 바꿨다고 한다. 두번째 이유는 누구나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의 작가라고 쉽게 말하는 데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를 밝힌 사람이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게 그 이유라 한다. 마지막으로 플로베르는 오늘날 문학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점의 핵심에 위치하는, 현대 소설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이렇게 주장한 뒤 사르트르는 이러한 분석의 출발로서 플로베르의 유년기로 거슬러 올라가 문제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출발점이 아니라 믿는다”라며 서문을 마무리 한다. 이 서문을 요약하면

1. 『가족의 천치』는 방법론의 구체적 적용이다.
2. 목표는 작가 플로베르의 총체적 이해이다.
3. 방법은 모든 정보의 총체화이며 정보의 이질성은 자라매김으로 극복한다.
4. 플로베르를 선정한 이유는 3가지이다.
5. 그 출발점은 유년기 분석이다.

서문에서 밝힌 『가족의 천치』의 성격, 목표, 방법, 집필 동기, 출발점 중에서 1, 2번은 선언적 성격이며 3번과 5번 사항은 각각 진행-퇴행적 방법론, 실존적 정신분석에 관련된다. 사르트르가 총체화한 정보는 무엇인가. 우선 코나르 출판사본 플로베르 전집이 있다. 이 전집은 사르트르가 지적한대로 이질적 정보로 이뤄진 바, 소설, 희곡, 서간집, 그리고 플로베르의 조카 카롤린 코망빌의 회고록이 실려있다. 그 중에서도 사르트르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대상은 유년기 습작품이며 이 기간에 관련된 서간집이었다. 정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진행-퇴행적 방법론은 『가족의 천치』 1권 1부 “형성”에서 소재목으로 퇴행적 분석, 진행적 종합 등의 용어로 등장하지만 보다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 2권 2부 6장 “몸것에서 역할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 사르트르는 플로베르의 학창시절을 분석하면서 이에 관련된 자료로서 서간문, 습작 소설을 동원한다. 1851년 11월 초 플로베르가 그의 정부 루이즈 콜레에게 쓴 편지에서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자기는 몇몇 동료

14) 『가족의 천치』 2권 p. 1111

와 때를 지어 다니며 광기와 자살 사이에서 고뇌하는 사춘기 특유의 예술적 분위기를 빼졌고 그 중 몇몇은 실제로 자살을 했던 멋진 시절이었다고 기술했다.<sup>15)</sup> 이 첫번째 자료는 다시 약 20여 년 후인 1870년 6월 20일에 탈고한 “마지막 노래”의 서문과 비교하면 그 의미가 한결 뚜렷해진다: “학생들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낭만주의의 마지막 분출, 그 과장법으로 찬란했다” 두 텍스트는 서로 의미를 보완하며 플로베르의 청년기를 재구성하는데,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꿈과 정열을 지닌 학생 그룹의 일원이었던 플로베르를 상상케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플로베르의 모습은 불충분하며 오히려 허상에 가깝다. 각각 15년, 35년 정도 후에 회고 시점으로 씌여진 서간문과 서문이 그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것은 청년기에 씌여진 텍스트와 비교함으로써, 즉 청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퇴행분석으로 가능하다. 플로베르가 1837년 1월에 탈고한 “최후의 시간”과 비교해보면 이렇다: “나는 일찌기, 인간과 접촉에 들어가자마자 인간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12살에 되자마자 나를 중학교에 넣었다. 거기에서 나는 세계의 축소판, 그 악덕의 축소판과 우스꽝스러운 것의 씨앗을 보았다” 여기서 독자는 앞서 인용한 두 텍스트와는 전혀 다른 청소년기 플로베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1856년 발표된 『보바리 부인』의 도입부와 비교하면 『보바리 부인』보다 20년 전에 씌여진 “최후의 시간”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된다. 다시 습작품에 속하는 『광인일기』를 보면 유사한 구절이 반복된다: “나는 10살이 되자 학교에 들어갔다. 나는 일찌기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어린이 사회는 어른 사회만큼이나 그 희생자에게 잔인하다” 두 종류의 상반된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행적 종합에서 사르트르는 플로베르의 시간 개념을 도출하면서 이 두 종류의 텍스트가 제기하는 모순을 극복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플로베르는 시간성을 “타락의 과정”이라 생각했다. 그 결과로 회고적 시점에서는 과거를 윤색하고 현재를 비하하고 과거화된 현재를 과대평가하게 된다.<sup>15)</sup> 사르트르가 전기에서 시간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전기가 초상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장 스타로벵스키의 관점과 일치한다: “전기는 초상화가 아니다. 혹은, 초상화라고 간주 하려면 거기에 지속성과 운동성을 도입해야만 한다”<sup>16)</sup> 5번항에서 사르트르가 한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유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15) “Il vit sa temporalisation propre comme un processus de dégradation, ce qui implique nécessairement, chez lui, une tendance à idéaliser le passé. Il observe lui-même à plusieurs reprises qu’il ne jouit pas de ce qu’il possède et regrette âprement ce qu’il a perdu” L’Idiot de la famille, t. II, p. 1113

16) “La biographie n’est pas un portrait : ou, si on peut la tenir pour un portrait, elle y introduit la durée et le mouvement” La relation critique, Gallimard, 1970, p. 83

한다고 주장한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프로이트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반박한 사르트르지만 유년기의 의미를 재평가한 점이나 과거에 도외시했던 현상, 즉 꿈이나 실수 등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프로이트의 공로라 인정한다. 『가족의 천치』에서 본격적으로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종합을 시도했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이미 『말라르메』를 집필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종합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고있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인의 역사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의 역사로 해석하는가? 소위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아니면 정신분석으로?”<sup>17)</sup> 사르트르가 다룬 작가 중에서 『가족의 천치』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활용했지만 정작 유년기에 관련된 자료는 문헌성보다는 자료적 성격이 강한 습작품 및 서간집 뿐이고 또한 플로베르의 습작기는 1835년에서 1842년 정도이고 그 이전, 정신분석에서 유년기라 부를 만한 기간에 대해선 아무런 자료도 남지 않았다: 사르트르가 『가족의 천치』 1권 1부에서 유년기 분석은 플로베르 전공학자로부터 가장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다. 전기의 제목처럼 플로베르가 유년기에 “가족의 천치”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으며 특히 플로베르 가족인 부모와 형 아쉬이, 여동생 카롤린느 등은 모두 사르트르의 상상력이 그려낸 인물상이란 게 플로베르 전공학자인 장 뷔르노의 진단이다. 플로베르의 갈등 중 하나가 아버지의 과학적 분석 정신과 어머니의 기독교 정신의 모순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 사랑 없는 어머니의 손길과 냉정한 아버지의 시선이 플로베르를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료의 부족을 진행-퇴행 방법론으로 극복하려 했던 사르트르도 결국 순수한 추론의 무력함을 고백했지만 “비현실의 선택”과 “수동성”으로 요약되는 플로베르 전기가 세워진 두 기둥이 모두 유년기 분석에 있고 그 유년기 분석이 허술하다면 사르트르의 고백처럼 『가족의 천치』는 “진짜 소설”로 읽어야 할 것이다.

사르트르가 전기에서 강조한 방법론은 한 개인의 역사를 충실히 복원하는데 유용한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리고 그 방법론은 인간의 자유의사, 주체적 의식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신분석이나 유물론적 변증법이 한결같이 주체의 자유보다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게 사르트르의 견해였고 특히 전통 마르크시즘은 집단적 환경에 의해 한 인간의 형성을 설명하는 결정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가 전통 마르크시즘을 거부하는 이유를 마르크시즘은 한번도 만족할 만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했으며, 만족할 만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념체계란 집단이나 역사의 대상이 아닌 한

17) “Le vrai problème est là : interprétation par l'histoire de tous ou par l'histoire d'un seul? par la méthode dite de “dialectique matérialiste” ou par la psychanalyse?” Mallarmé, p. 88

주체적 개인의 운명을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발레리는 뺨뺨 부르주아 지식인이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모든 뺨뺨 부르주아 지식인이 발레리는 아니다. 현대 마르크시즘의 해석학적 결점은 이 두 문장 안에 표현된다.”<sup>18)</sup> 개별성이 매몰되는 마르크시즘을 거부하는 것은 일견 루카치가 비난했던 브르조아의 이상적 개인주의에 빠지는 듯 보이지만 앞서 밝혔듯이 실존의 공간은 구체적 개인이었다: “구체적 마르크시즘은 구체적 인간들을 황산수 욕조 속에서 녹여버리지 말고 현실적 인간을 심화시켜야만 한다”

<sup>19)</sup> 사르트르가 흔히 주변 문학이나 역사의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전기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전기야말로 개인을 주체로서 복원하는 글이기 때문이었다. 『가족의 천치』 서문에서 인간은 보편 개별적 존재 *Universel particulier*로 규정하고 이 두 차원을 고루 부각시키고자 했지만 사르트르의 눈에는 “대부분의 마르크시스트에게 있어서 사고한다는 것은 총체화를 주장하지만 이런 미명 하에 개별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대체” 하는 것으로 보였다.<sup>20)</sup>

#### 4. 전기와 성

이렇듯 사르트르가 전기를 저술한 동기로 내세웠던 것은 주로 방법론의 검증이었고 구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실존적 정신분석이나 진행퇴행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내세웠으나 이러한 철학적,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전기는 사르트르의 내면세계, 무의식에서 잠재된 고정관념, 집착에 유래하고 있다. 사르트르의 전기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냉철한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환상이나 무의식적 경도라는 것은 유년기를 회고한 자서전 『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자서전 『말』은 “읽기”와 “쓰기”라는 두 장으

18) “Valéry est un intellectuel petit-bourgeois, cela ne fait pas de doute. Mais tout intellectuel petit-bourgeois n'est pas Valéry. L'insuffisance euristique du marxisme contemporain tien dans ces deux phrases” *Questions de méthode*, p. 53

19) “Le marxisme concret doit approfondir les hommes réels et non les dissoudre dans un bain d'acide sulfurique” *ibid.*, p. 45

20) “Penser, pour la plupart des marxistes actuels, c'est pr tendre totaliser et, sous ce pr txté, remplacer la particularité par un universel” *ibid.*, p. 48

로 구성되었을 만큼 사르트르의 일생은 두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외조부의 영향으로 독서에 몰두하며 사르트르는 일찌감치 자신의 운명을 책과 연결짓고 글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유한한 인간존재가 글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고정관념을 갖게된다. 『구토』와 같은 문학작품이나 자서전 『말』, 『이상한 전쟁의 노트』등에서 전기물에 대한 경도가 철학적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르트르 특유의 집착으로 보이는 대목이 발견되고 평자들은 이를 일컬어 “전기적 환상”이라 이름하였고 그 내용은 이렇다: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재는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의 소치이다. 지상에 인간이 출현한 것은 순수한 우연의 소치인데 자신의 존재를 필연이라 증명코자 하는 모든 인간을 사르트르는 Salaud라는 극단적 용어로 불렀으며 존재의 필연성이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인간 존재는 매순간 정당성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려하지만 한 인간의 삶은 죽음의 관점에서만이 그 정당성이 확인된다.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존재,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에 그 선택을 총체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은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서만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멋진 장례식을 가질 테다” 라는 선언이 사르트르가 일생 동안 집착했던 명제 중 하나였고 빅토르 위고처럼 수만명이 뒤따르는 멋진 장례식은 한 작가가 이 지상에서 이른 성취를 정당화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장례식은 하나의 메타포에 지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작가로서의 성취를 가능하는 기준을 사르트르는 사후에 전기의 대상이 되는 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자서전 『말』에서 드러나는 사르트르의 환상 중 하나는 자신의 삶이 책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란 강력한 예감내지는 자기암시에 의해 마침내 삶이란 글로 씌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란 환상을 갖게 된다. 죽음이 삶의 진정한 완성이란 점에서 사르트르는 예술가의 삶은 기독교 순교자의 삶과 다르지 않고 그가 장 주네의 전기를 성인, 순교자란 제목을 부여한 것은 전기집필이 곧 시성화(諡聖化)라고 생각한 것이다. 시성화는 한 인간의 행적을 사후에 철저히 조사하여 과연 성인의 품계에 오를 수 있는가를 심사하여 성(聖, saint)이란 명칭을 이름에 수여하는 것이니 성인전기인 Hagiographie가 속세의 전기인 예술가의 Biographie는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물론 사르트르는 신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적은 없다. 19세기 후반에 태어난 작가들은 신을 부정할 수 있는 영광마저도 누리지 못한 불행한 세대라고 말한 사르트르에게는 무신론은 이미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자명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사르트르 세계관의 초석을 이루는 우연성, 자유, 실존 등과 같은 개념은 신의 사망증명, 부재증명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양도 불가능한 절대적이란 관점이 후기에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상대적 관점으로 변화를 겪으면서도 신의 부재에 대한 사르트르의 태도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사르트르는 신과 관련된 인간사의

문제, 종교현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까지 외면하진 않았을 뿐 아니라 성인의 삶이나 금욕적 고행, 좌절, 종교적 소명의식 등은 사르트르가 자주 동원하는 예가 되고 특히 전기에서는 성인의 삶과 예술가의 삶을 비교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종교적 체험은 예술적 쾌감과 연관된다. 자서전 『말』에서 사르트르의 가족은 종교적 열정보다는 음악 감상을 위해 교회에 갔다는 구절이 있다. 신이 소거된 종교 행위는 사르트르 눈에는 예술적 행위와 다름없게 보였을 것이고 똑 같은 구절이 『플로베르』 전기에서도 반복된다. 즉, 19세기의 전형적 브르조아 계급이었던 플로베르 가족, 특히 플로베르의 어머니도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 음악 등을 감상하기 위해 미사에 참석했다는 해석을 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자료적 근거는 없고 바로 이런 부분을 예로 들어 비평가는 사르트르 해석의 주관성, 그리고 심리적 투사현상을 지적한다. 한 인간이 작가로서의 소명의식을 품게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사르트르의 전기라면 자서전 『말』도 똑 같은 주제를 다룬다. 어린 사르트르는 모험 소설이나 위인전을 읽으며 그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유아기적 환상을 즐기고 외할아버지를 통해 브르조아적 휴머니즘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렵고 힘든 노력을 통해 이데아를 관조하고 인간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나의 펜은 곧 나의 칼”이라는 기사적 작가 crivain-chevalier에서 순교자적 작가 crivain-martyre로 의식변화를 겪는 동시에 “문학과 기도를 혼돈”하고 이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순교자를 예술가의 소명이라 생각한다.<sup>21)</sup>

예술가적 소명의식을 종교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법적 차원이 아니라 전기의 전체 틀로서 사르트르는 성인의 삶 Hagiographie을 원용하고 있다. 예술가의 삶과 순교자, 성인의 삶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며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신과 자기만의 소유주를 창조하는 예술가와 비교하는 건 유독 사르트르가 아니더라도 흔한 일이지만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가 예술가 삶을 종교적 개념을 동원하여 다뤘다는 게 흥미롭다. 예술가는 피안의 삶을 희생하고 죽은 뒤에야 작품으로서 진정한 작가의 반열에 오르고 후대까지 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즉 사르트르의 전기적 환상에 비취진 두 유형의 삶은 비교가능하다. 영생을 얻는 과정에서 속세를 버리고 장시간 은둔과 고행을 하는 성인은 일생 동안 세상을 등지고 크르와세에 은둔한 플로베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르트르가 예술을 “비현실의 선택”이라 파악했다면 종교 역시 피안의 선택이란 점에서 유사하고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르트르는 적극적으로 작가과 성인을 동일시하고 있다. 사르트르에게 고유한 테마인 “유펜 테마”<sup>22)</sup> 는 작가와 성인을 관계를

21) Les Mots, p. 148-9, passim.

22) Marie-Denise Boros, *Un séquestré, l'homme sartrien*, éd. Nizet, 1968



극명하게 보여준다. “비현실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성인화 과정은 종종 유희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이나 종교는 타락된 현실에서 벗어나 절대적 구원을 얻는 길이란 점에서 사르트르의 가장 핵심적 개념인 원초적 선택에 걸맞는 숭고한 가치로 부각된다. 사르트르가 집요하게 매달렸던 우연성 이론은 신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구원 받는 길은 예술 뿐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한다.<sup>23)</sup> 이는 타락, 고행, 구원, 영생의 도식이 종교적 과정이라면 예술가의 행적은 타락을 소재로 예술적 승화 과정을 거쳐 불멸의 작품을 낳는다는 관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예술가가 반드시 당대의 보편적 가치체계에 입각한 가치에 귀의하는 것도 아니고 사르트르가 다른 작가들은 오히려 악마적 가치에 의도적으로 몰입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검은 미사에 참여한 반 성인이라 불러 마땅하다. 추구한 가치는 성인과 예술가가 대척점에 놓이지만 그 가치를 선택하고 고뇌와 회의, 열정의 강도 면에서 그들은 닮은꼴로 보여지게 된다. 현실은 타락했으므로 만약 한 시인이 현실적 성공을 한다는 것은 예술적으론 타락하는 것과 같은 바, 잘못된 세상에서 시인은 반드시 실패해야만 진정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성인이 시성화 Cannonisation되는 과정과 유사하며 성인과 예술가의 삶의 전략은 “패자가 승자” Qui perd gagne 라는 점에서 또한 그렇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나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동시에 출간되고 또한 당대의 재판정에 오른 공통점을 지니고 또한 후대의 문학사는 이 두 작가가 문학의 현대성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당대에는 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비난의 대상이었으나 비현실의 선택, 즉 작품으로 영생을 얻은 두 작가의 생의 전략은 “진 자가 이긴다”라는 성인 전략과 일치한다.

비록 사르트르가 정한 제목은 아니지만 『말라르메』 1장 소제목 “무신론의 상속자들” Les héritiers de l'athéisme은 그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말라르메』 제 1장은 신의 죽음이란 주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48년 : 왕정의 몰락은 부르주아로부터 보호막을 빼앗아 버렸다. 그 바람에 시는 두가지 전통적 테마를 잃게 되었다 : 보편적 인간과 신. 먼저 신의 문제부터 보자면 유럽은, 오늘날 몇몇 사람이 부정하긴 하지만 경악할 만한 소식을 접한다.” 신이 죽다. 유언 없음. “그 뒤를 잇는 상속문제

23) “Ma théorie de la contingence qui me conduisit à adopter une morale de salut par l'art” Cahiers de drôle de guerre, p. 112

“Il faut justifier donc son existence, par quoi ? c'est l'art. Sans l'art, l'homme ne vaut rien” ibid. p. 113

는 혼돈이었다. 그 사라진 신이 무엇을 남겼는가? 우연들이다. 인간도 그 중 하나이다”<sup>24)</sup> 사르트르의 진단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은 보편적 인간상과 절대적 존재자로서의 신이란 두 개념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보편적 인간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인간 해방을 내세운 혁명이 사실은 특정 계급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기적 폭동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부상한 부르조아 계급이 신봉했던 분석정신, 과학 만능주의는 신을 해체해 버렸다고 사르트르는 주장한다. 사르트르가 다뤘던 플로베르, 말라르메, 보들레르는 공히 신없는 고아 세대에 속하는 작가들이며 그 때문에 사르트르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방법론은 발전하고 있으나 근본적 틀, 즉 예술가란 신 없는 세계에서 종교를 예술로 대체한 순교자라는 관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말라르메의 주된 테마인 우연성이나 보들레르의 자연-문명의 대립 등을 집요하게 분석한 것은 모두 신의 사망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했던 논리 전개였다. 보들레르에서는 신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존재와 무』의 연장으로 보여졌지만 『주네』론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종교현상, 특히 성인과 종교의식, 사제 등을 다루는 것은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예고하고 완성하지 못한 『윤리론』을 『주네』론과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사후에 출간된 『윤리론』은 그 첫번째 페이지가 신앙과 윤리 문제로 시작되고 있다.<sup>25)</sup> 그리고 사르트르는 윤리를 정의하기 위해 트로츠키의 영구 혁명이란 의미에서 영구 개종 conversion permanente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사르트르 전기물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장 주네』나 『플로베르』에서 사르트르는 이 두 작가의 삶의 여정을 영구적 개종으로 파악하고 주네의 첫번째 개종을 “악으로의 개종”, 두번째를 “미학자로서의 개종” 등으로 변화 과정을 전개했는가 하면, 플로베르도 유사하게 “상상적 아이에서 배우로”, “배우에서 작가로”, “작가에서 시인으로”, “시인에서 예술가로” 등, 그 변해가는 과정을 추적했는데 이는 영구 개종을 계속하는 순교자적 예술가의 초상이었다.

무슨 이유로 19세기 후반의 작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사르트르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세기라는 편리한 대답을 했지만 19세기 후반부 이전 작가들은 근본적으로 사르트르가 품었던 예술관이 쉽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비록 말라르메나 플로베

24) Mallarmé, *La lucidité et sa face d'ombre*, édition Arcades/Gallimard, 1986, p. 15

25) “Tant qu'on croit en Dieu il est loisible de faire le Bien pour être moral. La moralité devient un certain mode d'être ontologique et même métaphysique auquel il nous faut atteindre” *Cahiers pour une morale*, éd. Gallimard, 1983, p. 11

르의 예술관을 논하는 자리였지만 그것은 그 작가들의 예술관이라기보다 자신의 예술관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었다.<sup>26)</sup> 19세기는 절대적 가치인 종교가 사라진 하느님의 고아들이 새로운 절대적 가치를 예술에서 찾으며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예술 지상주의가 최초로 나타난 시대이자 지상에서 “저주받은 시인”이라는 새로운 순교자를 양산한 시대이기에 사르트르의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

어쩌면 사르트르가 쓴 전기(Biographie)와 성인 전기 (Hagiographie)가 유사성을 보이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 예외적이며 동시에 모범적 인물의 삶을 그린다는 전기가 지닌 역설에 비춰 보아 대상 인물의 유사성도 그렇고 회고적 시점에서 연대기 순서에 따라 삶의 중요한 단계를 짚어나가는 게 반드시 “영구 개종”이란 용어가 적용될 수 없는 보편적 전기기술 양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전기와 성의 문제는 『주네』론이나 『플로베르』론을 심층 분석하면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며 사르트르가 제공한 길, 즉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적 방법론에만 관심이 치우친 듯한 사르트르의 전기물 연구에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이 실마리가 유용할지는 보다 실증적 연구가 뒤따라야 확인되는 문제일 것이며 본고는 가설 수준에 멈췄다.

불어 불문학과 이 재 룡

26) 19세기에 대한 관심은 그 세기에 속한 작가에 그치지 않고 당시 문학비평 방법론까지 이어진다. Jacques Deguy는 “Sartre et la critique littéraire du XIXe siècle”에서 역사 실증주의 비평가인 Taine, Sainte-Beuve, Lanson과 사르트르의 비평관을 비교했다. 사르트르가 제기한 문제, 즉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란 무엇인가,도 다분히 19세기적 질문이며, 보다 정밀한 분석에 의해 밝혀져야겠지만 사르트르 비평의 핵심용어인 “원초적 선택”과 텐느의 “주도 기능”은 환원 불가능한 전기요소란 관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 참고문헌

Jean-Paul Sartre :

- Saint Genet, Comédien et Martyr, Gallimard, 1952  
 Cahiers pour une morale, Gallimard, 1983  
 Les carnets de la drôle de guerre, Gallimard, 1983  
 Questions de méthode (dans Critique de la raison dialectique), Gallimard, 1985  
 L'idiote de la famille, I, II, III, Gallimard, 1988

- 
- Betty Cannon : Sartre et la psychanalyse, P. U. F, 1993  
 Claude Burgelin : Lecture de Sartre, Presses Universitaire de Lyon, 1986  
 Daniel Madel nat : La biographie, PUF, 1984  
 Dominique Marie : Création littéraire et autobiographie, Pierre Bordas et fils, 1994  
 Jean Starobinski : La relation critique, Gallimard, 1970  
 Josette Pacaly : Sartre au miroir, Klincksieck, 1980  
 Marie-Denise Boros : Un séquestré, l'homme sartrien, d. Nizet, 1968  
 Michel Sicard : La critique littéraire de Jean-Paul Sartre, Lettres Modernes, 1980

Revue des Sciences Humaines, no 224

## ABSTRACT

**Sartre le biographe :  
La sainteté et l'illusion biographique**

LEE JAE RYOUNG

Ce travail est fondé sur deux constats : le premier, c'est que la biographie occupe une place prépondérante dans les ouvrages de Sartre. Si accéder à l'immortalité par l'écriture était une obsession propre à Sartre, la biographie transforme, à ses yeux, la vie d'un homme en livre, en monument culturel qui symbolise l'immortalité par excellence. La biographie, en tant que genre littéraire, ne cesse donc de le fasciner au point qu'à la fin de sa vie, la biographie de Flaubert devient un seul et unique projet d'écriture. La biographie était un champ d'application idéale pour la théorie qu'il a élaborée dans ses livres philosophiques tels que L'Être et le Néant, ou Question de méthodes. Si la vie d'un individu elle-même ne l'intéresse pas outre mesure, Sartre cherche à prouver la validité de sa théorie. On constate donc que la biographie prend une dimension croissante et aux années 60, Sartre consacre tous son temps à préparer L'Idiot de la famille.

Deuxième remarque que personne ne conteste, c'est que Sartre restait toute sa vie un athée invétéré bien que son attitude sur le plan philosophique, politique et littéraire évoluait de L'Être et le Néant à la Critique de la raison dialectique. Sa conception de la liberté absolue de l'homme ne lui permet pas de supposer un Dieu, surtout un dieu chrétien.

A partir de ces deux constats qui restent de prime abord sans lien immédiat, on peut constater que Sartre évoque souvent la vie d'un saint dans ses biographies. Dès celle de Mallarmé il identifie le poète au saint chrétien : selon Sartre, au dix-neuvième siècle le dieu chrétien mort et enterré définitivement n'intervient plus dans la littérature. Le poète, assassin de dieu, cherche donc le rachat par l'ascétisme esthétique. D'où la conception de l'art bien particulière de ce siècle,

l'art pour l'art. Comme l'art est élevé au rang de valeur absolue comparable au Dieu, le poète assume volontiers le rôle de martyr qui sacrifie sa vie au gloire de l'art.

Bien que Sartre n'a en aucun moment recouru à la notion transcendantale comme Dieu dans sa jeunesse, ses biographies ont une même structure que celle de l'hagiographie chrétienne. La vie de saint ou plus précisément la sainteté en tant que symbole de l'immortalité devient un thème de préoccupation. Un phénomène assez curieux : un Sartre existentialiste et athé se penche à la fin de sa vie sur cette question.